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6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26)	봉헌 (211)	성체 (178)	파견 (19)
---------	---------	----------	----------	---------

<p>제1독서 레위 13,1-2,44-46 화답송 시편 32(31),1-2,5.11(◎ 7 참조)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 시나이다. ○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 ○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 제2독서 1코린 10,31-11,1 복음환호송 루카 7,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마르 1,40-45</p>	<p>성소를 위한 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2/4	이 마틸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2/11	유 요한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2/18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2/25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미사책대금
	\$190	\$75	\$950	\$1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20	김 요아킴/ 고 안나	2/24	황 가롤로/ 김 안드레아
1/27	김 유스티노/김유스티나	3/3	오 베드로/ 오 루시아
2/3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3/10	손 아놀드/ 손 쟈마
2/10	김 마론/ 김 헬레나	3/17	이 글라라/ 장 글라라
2/17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3/24	이 요한/ 이 마틸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오는 성체조배는 3 월 1 일 입니다.

공동체 소식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7 시

이번 임원회의는 오늘 오후 7 시에 있습니다.

공동체 기도 성가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8:00 문의: 박 바오로

주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 성가책을 돌려주세요 ****

우리 공동체가 사용하는 성가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가정으로 가져가신 성가책이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018 년도 매일미사 책값 안내

올해 미사책값이 일년치 50 볼, 권당 5 볼 로 책정 되었습니다.

본당 재정 사정으로 미사책 값을 납부하신 수 대로 책을 주문하고 그 분에 한하여 미사책을 나눠드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성경공부 - 마르코복음과 함께 (매주 금요일 오후 7 시)

다음 성경은 마르코복음 3,4 장을 필사하시고 그것을 통독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장소는 성당 교리실 입니다. 문의: 유요한 형제님

****사순기간 동안에는 십자가의 길 후에 하게됩니다.****

한인 공동체 이메일 개설 sanclemente.kc@gmail.com

교우들의 새로운 소식등 공지를 원하시는 사항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조식 봉사 3 월 13 일(화) st. Vincent de Paul center

봉사해 주실 분들은 아침 7 시 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300 Bakers St, Bakersfield, CA 93305 문의: 이 그레이스 자매님

재의 수요일 미사 2 월 14 일(이날은 단식과 금육을 함께

지킵니다)

오는 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미사시간:

English - 9:30am, 5:00pm

Spanish - 6:00pm, 7:00pm, 8:00pm

십자가의 길 2 월 16 일오후 7 시 ~ 매주 금요일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에 2 월 16 일 금요일 오후 7 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의 이삭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정희선 카타리나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대학의 테두리 안에서 오로지 경영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며 한 평생을 지낸 저는 정년퇴임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주님의 품 안에서 열기로 하였습니다. 그 길로써 '가영시아'를 선택하였습니다. '가영시아(가톨릭 영시니어 아카데미)'는 천주교 서울 대교구 노인사목부에서 운영하는 youngsenior(55세~67세) 신자들을 위한 2년제 학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신자들의 영성생활을 돕기도 하지만, 아홉 개의 두레가 있어 원하는 취미 분야를 배우고 익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진을 만났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는 명동대성당 경내에서 주님의 은총을 만끽하며 지냈습니다. 아침 10시에 미사를 드리고 교양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새로운 취미로 사진을 공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 깊은 명동대성당의 아름답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는 건 이만저만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너나없이 바쁜 생활을 하지만 하루를 온전히 떼어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게 하루를 보내는 방법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2년간의 '가영시아' 과정을 거친 후 지금은 서울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흔치 않게 혼자 있던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내 일에 몰두하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거실로 나갔을 때 온 집안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잠시 맛보았던 적막함, 외로움. 매일이 그렇다면 어떨까. 왈각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쓸쓸하고 외로운 날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권태롭고 무로한 날들도 닥쳐옵니다. 아직 건강할 때 미리 이런날들에 대비하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요. '가영시아' 덕분에 저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잘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사랑에 맞 들이면서 그 안에서 영원히 행복할 날

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툭툭이 기도를 하고 밤이면 정해진 시간에 남편과 나란히 앉아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과 함께'의 성경통독 계획표에 따라 읽는데, 일 년이면 성경을 한 바퀴 다 읽게 됩니다. 인생의 노을이 지는 시기에 우리 부부가 이런 뜻밖의 길을 통해 함께 누리는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될 줄 우리는 일찍이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다시 읽기 시작한 신약성경은 작년과는 다른 깊이로 새로운 깨우침을 줍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집에서 성경을 가까이하며 읽는 것은, 오래전 여고 동창들 십여 명과 함께 했던 성서 백주간의 경험 덕분입니다. 지금도 동창회의 가톨릭 모임이 이끄는 정기적 강의와 미사, 피정 그리고 매일 카톡으로 전달받는 신부님의 묵상글이 저의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깨어 있다면 하느님께로 가는 길도 언제나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사순시기가 왜 생겼을까요?

사순시기 40일은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40일동안 단식하며 기도하신 기간에서 유래합니다.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성목요일 주님만찬 미사 직전까지를 가리킵니다. 정확히 날짜로 세어보면 43일과 44일 사이가 됩니다만, 대략 40일을 의미하는 사순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사순시기 동안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기 위해 단식과 극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40일은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 회개와 정화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_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

